



# 백남준의 작품이 잠들지 않는 이유

숨은 예술

찾기 보이지 않

는 곳에서 예술과 예

술가들을 만들어가

는 숨은 예술, 숨은

예술가들과의 만남

비디오아트 기술자

## 이정성

**백**남준의 그 많은 텔레비전 탑은 누가 세웠을까? 백남준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정성이라는 낯선 이름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그러나 이정성이 없다면 백남준의 작품 중 많은 것들이 당장 작동을 멈출지 모른다. 아니, 어떤 것들은 애초에 탄생하기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백남준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획한 ‘아버지’라면, 그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 탄생시킨 ‘어머니’가 바로 이정성이기 때문이다. 비디오아트 제작자 이정성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치고, 불가능할 법한 것은 가능으로 바꾸어놓는 고도의 기술자다. 1988년 과천 국립현대

미술관의 대형 비디오탑 <다다익선>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거장 백남준과 18년간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작품들을 완성시켰다.

그가 TV를 만지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텔레비전 기술학원에 다니며 처음으로 TV 수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TV와 오디오를 뜯고 조립하며 기술을 익혔고, 곧 세운상가에 전파상을 열어 30년 가까이 토종기술을 쌓았다. 세계적인 TV 기술 장인으로서의 밑천은 든든히 마련되었던 셈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1986년 서울 국제무역 박람회를 치르면서 이정성은 백남준과 만났다. 이

정성이 한 전자회사의 부탁을 받아 홍보용으로 사용될 모니터 탑을 쌓았고, 마침 <다다익선>을 구상하고 있던 백남준이 그 솜씨를 보고 단번에 그를 점찍은 것이다.

백남준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이정성은 다섯 가지를 주문하면 여덟 가지를 만들어오는 충실한 손이었고, 향수에 젖은 백남준과 고국을 회상하는 다정한 친구였으며,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훌륭한 조연자였다. 백남준을 회상할 때 이정성은 좀처럼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 속 백남준은 여전히 미국에서, 독일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가 불쑥 전화를 걸어 “정성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들어봐.” 할 법한 생생한 현재형이었다.

처음에는 ‘백남준의 손’이 아닌 그저 ‘비디오아트 기술자’ 이정성을 알고 싶어 시작한 인터뷰였다. 그러나 두 시간 가까운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백남준과의 추억을 꺼내고, 백남준이 떠남으로써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졌다고 쓸쓸하게 말하는 이정성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백남준 없이는 이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아마도, 이정성 없는 백남준 역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뷰를 마칠 즈음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백남준이 무척이나 그리워졌다.

**문화예술**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디오아트 기술자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백남준 선생님 작품도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면 직접 제작하시는 줄 알았구요.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작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정성**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 워낙 크고 어떤 건 모니터만 천여 개가 되는데, 노인네가 중량물을 들고 움직이고 또 거기에 전기전자 기술까지 겸비해서 만드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작가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풍부해도 기술 분야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혼자 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서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저기 (벽에 걸린 사진 가리키며) 저게 대전 시립 미술관에 있는 <거북선>이거든. 저런 거나 과연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다다익선>도, 작가 혼자 만들고 쌓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조금만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지. 그런데 비디오아트를 잘 모르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 백남준 선생님하고 어떻게 처음 만나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비디오아트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정성** 아니야. 난 옛날에 세운상가에서 수리상 운영했어요. 비디오아트나 예술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기계만 만지고 살았는데... 선생님이 날 찾아내서 붙잡아 내준 거지. 1986년인가, 선생님이 <다다익선>을 구상하시던 중이었는데, 무역박람회 때 내가 한 작업을 보신 거야. 그때 삼성에서 TV를 홍보한다고 해서 내가 모니터 500개를 세웠거든. 또 마침 어느 전자회사에서 나를 백 선생님한테 추천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문화예술** 수리상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셨나봐요. (웃음)

**이정성** (웃음) 아냐, 아냐. 유명하다기보다도,

그때나 지금이나 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면 상대가 알아주든 모르든 일단 내가 좋거든. 아마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야.

**문화예술** 비디오아트 기술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백 선생님께서 도면 같은 걸 그려 주시면 그대로 만들고 설치하는 건가요?

**이정성**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이디어는 대개 심플해요. 컴퓨터로 그래픽까지 해가면서 캐드로 치수 맞춰서 그려주는 게 아니거든.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드로잉만 하거나 말로 해주시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걸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을 그리고 싶어서, 위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아래 길쭉한 동그라미 놓고 팔다리 짝짝 그려놓으면, 사람 모양을 만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뭘 원하는가를 얼른 알아차리고, 작가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 있느냐를 얼른 캐치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드리지.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시면 도면을 그려서 그대로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작가가 사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한다고 하면 머리 다 빠지지. 난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뿐이야.

**문화예술** 구체화시켜서 보여드렸을 때,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야’ 하는 반응은 없었어요?

**이정성** 그런 건 없어요. 한 번도.

**문화예술** 와... 이 선생님도 대단한 예술적 감을 갖고 계신가 봐요.

**이정성** 그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 한 시간이나 길어야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지. 그런

데 백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면 보통 세 시간, 네 시간이에요. 가끔은 밤을 샜 때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은 ‘앞으로 뭐 할 거고 뭐 할 거다’, ‘난 이런 것도 했으면 한다. 이런 것도 테크닉적으로 가능하냐’ 하면서 늘 작품 얘기를 하세요. 언제 만들 거라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내가 이해해놓으라고 평소에 늘 가르침을 주시는 거지.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선생님이 전화로 몇 마디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얘기한 거 있지?” 그러면 난 바로 알거든. 이미 우리 사이에서는 토론이 끝난 얘기고 나야 늘 메모를 해두니까, 내가 토 달고 물어볼 일도 없지. 그래서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봐”가 끝이에요. 그렇게 평소에 서로 얘기를 하니까 의견 어긋날 일도 없고. 나만 정신 차려서 선생님 주문에 응하면 의도하지 않은 작품을 내놓을 일이 없지.

**문화예술** 척 하면 척 알아듣는 사이였네요.

**이정성** 그게 안 되면 일을 못 해. 선생님이랑 내가 같이 한국에 있거나 하면 또 모르지만, 선생님은 보통 미국에 계시잖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나한테 전화를 하시면, 꼭 자고 있을 때 새벽 2시 3시에 깨운다고. 시차가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다고 해서 화끈하게 대답을 못하고, “아, 나 지금 졸린데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돼. 저녁에 술을 좀 먹게 될 때도 조심해야지. 직감적으로 ‘지금쯤 뭐 구상 전화를 하실 때가 됐지’ 싶으면 과음을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있으면 또 대개 그 타이밍에 전화를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2시건 3시건 전화 오면 벌떡 일어나서 대화를 해야 하니까. 외국 출장도 마찬가지로



지야. 갑자기 새벽에 깨워서 “내일 비행기 타고 독일 갔다 와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행기 표 끊어서 가야 하니까. 늘 긴장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못 맞춰.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 선생님하고 나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항상 옆에 있는 애한테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해드려야지.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해.

**문화예술** 백 선생님께서는 무척 좋은 어시스턴트였겠지만, 늘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시면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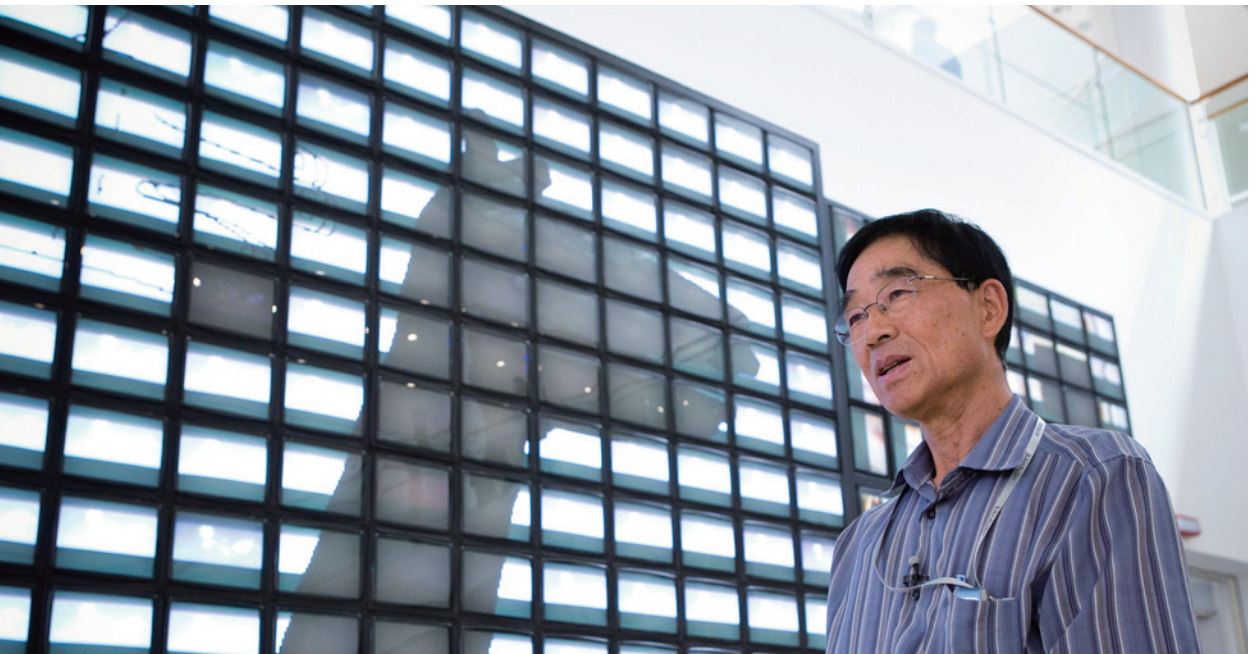
**이정성** 나는 무조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해외에 전시 있어서 나가면 선생님을 보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그 전에 지나간 얘기할 시간이 없어. 늘 선생님이 쌓아뒀던 구상 얘기를 막 쏟아놓으시니까. 끝나고 한국에 오면, 선생님의 주문도 없고 공백이 생기는데, 그게 일정치가 않잖아

요. 그러면 난 사무실에 앉아서 그전에 선생님한테 들은 걸 실천할 방법을 구상하고 연구해야지. 공백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그전에 무슨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까’, ‘언제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지만 만약 이걸 오더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걸 만날 공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온다고 해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그게 재밌어요.

**문화예술**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으세요?

**이정성** 그게 얼마나 재밌어.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내가 일한 걸 보고 선생님이 아주 만족하신다면 그게 최고지.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문화예술**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작할 일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요새는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정성** 선생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같이 의논도 하고 주로 작품 제작 위주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난 이제 선생님 작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지. 선생님 생전에는 선생님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작품을 쫓아다니는 거지.

**문화예술** 그러면 백 선생님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이 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정성** 대개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백남준 선생님 컬렉터들이 많아요.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러니까 어제는 국립현대미술관, 오늘은 시립미술관, 내일은 개인 소장가들 집에도 가고 하지. 선생님 작품 유지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컬렉터들이 걱정하는 것도 '오래된 TV 모니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니까. 또 백 선생님 작품으로 여기저기

서 전시도 계속 하니까 여차하면 해외 나가서 디스 플레이도 하지. 백 선생님 작품이 조그마한 회화작품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설치도 사진 한 장 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잘못하면 문제 일으키고 하니까... 그리고 아주 가끔은 컬렉터 분들이 감점 겸 해서 와달라고 부르기도 해요.

**문화예술** 감정도 하세요?

**이정성**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조금 유별나잖아요. 뭐 화랑협회나 무슨 감정협회 같은 데서 그림 감정 많이 하는데, 회화는 감정 기준이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떤 터치를 했느냐 하는 기준들이 도식화된 게 있지만,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런 때 그분들이 급하면 나한테 요청하는 거지. 아무래도 직접 제작한 사람이 보면 확실히 아니까.

**문화예술** 백 선생님 사후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백 선생님 제실 적보다 이 선생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정성** 옛날에 나 한참 다니던 시기에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식구 외에는 몰랐다고. 만 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여권에는 도장이 잔뜩 찍혀 있으니, 공항에서나 뭐 하는 양반이냐고 물어보지. 주위에서도 우리 집사람 외에는 별로 내 직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전시를 해도 선생님하고 늘 붙어 다니면서 같이 하는 것을 기자들도 몰랐다고. 나중에 파티 자리에서도 늘 백 선생님 옆에 있고 하니까 그때서야 누구냐고 묻고. (웃음)

**문화예술** 백남준 선생님과 18년이나 함께 계셨는데, 그동안 이 선생님 손을 거친 작품이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이정성** 그걸 어떻게 세요? 못 세는 게, 한 작품이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설치를 다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를테면 어떤 작품은 뉴욕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순회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틈에 한국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작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설치하고 해체해야 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작품 하나하나를 다시 조립하는 거지.

**문화예술** 그러면 제일 애정이 가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이정성** 뭐 다 애정이 가죠... (침묵) 참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대작도 많고. 특히 어느 작품이라고 한다면, 제일 고생 많이 한 거지 뭐. 내가 백 선생님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한 작품이고 지금도 유명한

<다다익선> 같은 경우는 내 평생의 작품이지... 제일 큰 작품이기도 하나까 더 그럴 거예요. 몇 년 전에 모니터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15년 만에 그 작업을 다시 하는 거더라고.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디오 분배기를 파는 데가 없었는데, 수입을 안 하고 그냥 직접 만든 게 생각나더라고요.

**문화예술** 비디오 분배기요?

**이정성** 그게 뭐냐면 DVD 플레이어 같은 걸 틀면, 모니터로 나가는 선이 하나나 둘이 나간다고. 그런데 이걸 천 대를 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선을 그냥 맞붙어나가면 신호가 죽어요. 그러니까 천 대를 틀어도 제일 처음에 튼 신호가 똑같이 유지되려면, 아주 좋은 분배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88올림픽 때만 해도 분배기라는 게 국내에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제작했는데, 15년 있다가 가서 봐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더라고. 물론 노후는 됐지만 나쁘지 않아. 15년을 열심히 일했으니 잘한 거지. 상당히 기분 좋았죠.

**문화예술** 그런데 워낙 전자기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복구하시다 보면 옛날 기계들은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세요?

**이정성** 그에 대해서 백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부품을 바꿀 일이 생길 때, 혹시 초기의 것이 없으면 그 시대에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꿔라. 내가 너한테 모두 일임하마’ 하고 써주셨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 브라운관을 정 못 구하면 LCD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품

은 아직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모니터를 봤는데 부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다른 부분이 망가져서 죽어 있는 모니터에서 그 부품을 하나 빼서 썼지. (웃음) 그래도 훌륭하게 살아나잖아요. 아주 알뜰하게 쓰는 거지.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문화예술** 물론 주위의 추천도 있긴 했지만, 백 선생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작업을 보고 이 선생님과 일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하고, 또 모든 걸 일임하실 정도로 신뢰하셨으니, 초기에 이 선생님을 발견한 백남준 선생님의 안목도 대단하네요.

**이정성** 나를 여러모로 살펴보셨겠지. <다다익선> 해놓고 내가 처음으로 뉴욕 휘트니 미술관 전시 때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영어를 일절 못하니까 선생님이 JFK공항에서부터 유학생 하나를 붙여주셨어. 그 학생이 항상 나한테 붙어 있고 다 내 대리로 해주니까 무사히 전시 준비하고 디스플레이까지 마치고 돌아왔지.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선생님이 스위스 산 갈렌이라는 데 가서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고 오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 “너 혼자 할 수 있지?” 하시기에, 이번에도 학생 하나 붙여줄 줄 알고 “예” 했지. 근데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나 혼자 털링 가서 그걸 해야 하는 거야.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아마 일종의 테스트였겠지. 뉴욕에서 날 관찰하면서, 이놈이 잘 하긴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웃음) 그렇지만 그때 뭐 난생 처음 혼자 보

파리 싸고 가서 무사히, 아주 잘 하고 왔으니까. 그게 시작이었지. 선생님이 만족하셨는지 그 후부터는 전화만 하면 보파리 싸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으니까.

**문화예술** 그러면 백 선생님 외에 다른 비디오아티스트랑은 일을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이정성** 간혹 한국이나 외국 작가들이 부탁해서 어드바이스해준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럴 기회는 내가 의식적으로 피했어요.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아이템을 짜가지고 그거 실현시키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서 난데없이 다른 작가들 작품을 한다고 하면 그건 외도나 마찬가지지.

**문화예술** 지금도 여전히 안 하세요?

**이정성** 지금도 그런 수준이야.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뭐 어려움이 있다’,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떡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기꺼이 대화 상대는 되어주지만 깊은 관여는 안 하지. 어쩌다가 한번 ‘이건 내가 꼭 해줘야 할 것 같다’ 싶으면 해줄 수는 있어도 본격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예술** 우리나라에 비디오아트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이정성** 90년대 무렵부터 유럽 쪽에 가서 비디오아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작품 활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교수가 되어 있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마 백남준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대개 그렇잖아요. 누가 아주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작업이 확산되고



그런 거.

**문화예술** 그러면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이 선생님 같은 분들 역시 많겠네요.

**이정성** 그건 또 아니에요. 요새 나오는 비디오 아트 작품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일단 백 선생님처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TV를 100대만 산다고 해도 그게 돈이 얼마야. 젊은 작가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대작을 만드는 건 뒤에서 스폰서 안 해주면 힘들어요. 그리고 백 선생님은 모니터를 많이 쓰고 중량감도 크고 그런 계열인데, 요즘 작가들은 그런 게 아니고 빔 프로젝션 이용한 비디오 에디팅,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비디오아트라고 하지만 백 선생님과 조금 다른 계열이고. 어시스턴트가 필요해도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 그

래픽, 애니메이션 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

**문화예술** 요새 나오는 비디오아트 중에서 특히 눈여겨보신 작품이 있나요?

**이정성** 뭐 다 신선하고 재미있지. 그리고 보니 외국에 재미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공학도들이 연구하다가 재미난 현상이 나오면 그걸 아트로 발전시켜서 작품 발표하고 그래.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그건 기술자가 아티스트로 변하는 순간이네요.

**이정성** 그렇지. 그런 현상이 의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실험하다가 우연히 나온 건데 그게 참 괜찮은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보통 발명도 그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작가가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세대답다고 할 수 있지. (웃음) 요새도 갤러리 가보면 대개 빔 프로젝션 걸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불 다 끄고 빔 프로젝션 가동하면 난리법석이 나지. 대개 그런 경향이에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섞은 백남준 선생 세대에서 요새는 예술도 디지털로 가더라고.

**문화예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백 선생님 작품을 관리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정성** 거의 없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출세 지향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기술자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야. 자, 봐봐. 학교를 가도 출세 지향적으로 가지, 엔지니어를 꿈꾸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포항 공대나 서울 공대 가더라도 대개는 컴퓨터 관련이나 연

구소로 가지. 사실 아티스트의 어시스턴트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비디오아트 유행이 바뀌어서 나 같은 기술자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없어졌고.

**문화예술** 그래도 백 선생님의 작품은 앞으로도 오래 작동될 건데, 나중에 이 선생님께서 관리를 못 하시게 되는 날이 오면 어찌죠? 그때를 위해서라도 후계자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성** 사실 내가 전에는 다른 직원들을 몇 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배울 만하면 도망을 가요. 일이 힘들고 별로 빛도 못 받으니까. 아니면 잘났다고 나가서는 자기가 백남준 기술자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난 인간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낀 적도 있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도망 못 가는 아들놈을 붙잡자' 했지. (웃음) 요새는 아들한테 알려주고 기술 가르치고 하지. 제가 뛰어봐야 베풀어줘야. (웃음)

**문화예술** 작품에서 작가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작품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제작의 비중이 어느 정도씩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정성**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 프로 작가죠. 예를 들어 작가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 합당치 못한 결과물이 나오면 작가가 안 쓸 거 아니에요? 작가가 원하는 걸 만들었을 때 작가가 비로소 오케이하는 거니까, 결국 모든 건 작가 몫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작품에 기여를 했다고 해도 미미한 거지. 내가 하는 일은 기분 좋은 거 그걸로 끝나야지 그거 이상은 바라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문화예술** 제작기술자로서 아티스트와 충돌은 없었는지도 여쭙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한 질문이 되겠네요. (웃음)

**이정성** 충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관둬야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물을 정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작가를 존경한다면 그레선 안 돼. 존경 안 하고 의견충돌 생기면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문화예술** 존경할 수 없는 작가랑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네요.

**이정성** 그럼. 존경해야 일을 하지. 사실 백남준 선생님과 일을 했기에 내가 선생님 돌아가신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아티스트시니까. 백 선생님 살아계실 때도 일하면서 충돌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불만도 없었고... 작품도 작품이거니와, 인격도 훌륭하셨어요. 선생님도 나를 당신 작업 조수로서 존중해주셨고.

**문화예술** 아무리 기계에 대해 잘 알아도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감이 없었으면 백 선생님 말씀을 잘 캐치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께 그런 감이 엿보였기 때문에 백 선생님도 선생님을 많이 존중해주신 게 아닐까요?

**이정성** 처음부터 난 예술 계통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조금도 비디오예술에 대해 트레이닝 받은 건 없지만 선생님하고 일하다보니까 동화되고 아예 거기 흡수된 거지. 내 기술도 마음도 그렇게 된 거 같아.

**문화예술** 20년 가까이 작업하시면서 비디오아트를 보는 안목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을

보면서 ‘저건 좀 괜찮은데’ 판단하는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이정성** 물론 있지. 하지만 그건 결국 나 혼자만의 기준이지, 대상을 앞에 두고 이게 잘 됐다는지 안 좋다는지 하지는 않아요. 그건 작가에 대한 큰 결례지.

**문화예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비디오아트고 관객 마음에 들 만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나요?

**이정성** 자, 그건 백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대신할게요. 가령 비디오아트 작품이 있는데 거기 관객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관객을 3분만 붙잡으면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관객이 걸어가면서 흘러가면서 구경하다가, 작품 앞에서 3분 머물면 그 이상 성공한 작품이 없다는 거죠. 어떤 포인트가 관객을 붙잡을지는 구상을 해야죠.

**문화예술** 짧은 것 같지만 긴 시간이네요.

**이정성** 보통 3분이라고 하면 ‘까짓 거 누가 못 보나’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술관에서 관객이 구경하는 걸 멀찌감치 보면, 어떤 작품 앞에서는 3초도 못 머물러. 3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그러니까 작가가 얼마나 머리가 빠지겠어요. 그렇게 관객을 붙잡으려고 온갖 상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니까 또 재미있고 신기한 작품도 나오는 거고.

**문화예술** 백 선생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은 없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힘든 일이라든지요.

**이정성** 기술적으로 힘든 걸 맡아 하는 게 어시스턴트의 일이지 않아요. 힘들게 만들어서 제대로 나

오면 기분은 더 좋지.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독일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웬만한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는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서 갑자기 퍼포먼스 일정이 잡힌 거야. 백 선생님이. 그래서 사전 미팅도 없이 갑자기 전화로 오더를 하시는데, 핑거 카메라라고 손가락 끝에 다는 가느다란 카메라가 있어요. 테이핑을 해서 매달고 피아노를 치면 카메라 렌즈에는 건반이 보이는 거지. 그걸 달고서 피아노를 두드리니까 연주는 되지만 사실 손가락은 떠있고 피아노는 카메라가 칠 거 아니에요? 그걸 양손에 두 손가락씩 4개를 달고 또 여기저기에 다른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무대 사이트에 있는 나한테 눈짓을 할 때, 뒤에 있는 16개 빔 프로젝션 영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며칠날까지 거기로 와라’ 그러면 끝이거든. 그때까지 그걸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이거니까 만들어서 며칠날까지 거기 도착해라.’ 그거거든. 그러면 밤을 새고 난리치고 하는 거지.

**문화예술** 그래서 결국 만드셨어요?

**이정성** 당연히 만들었지. 그 퍼포먼스 참 잘 됐어요. 피아노를 치면 흑백 건반이 줌인 줌아웃 되면서 막 어지러워요. 거기다 모니터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거꾸로 놓고... 그게 굉장히 어지러우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뭐 록밴드랑 퍼포먼스 하는 애들이 좋아가지고 아주 미쳐요. (웃음) 관중 반응이 그만큼 좋으면 난 뒤에서 괜히 신나지. 싱글싱글 웃고. (웃음) 신나면 뭐 나 혼자 신나



는 거지만... 근데 사실 정작 공연 가보면 백 선생님은 작가로서 욕심이 생겨서 처음에 오더한 것보다 더 많은 오더를 현장에서 하세요. 수많은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 처음에 요구하실 땐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아, 그거면 확실해. 그것만 해와.” 하시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해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난 처음부터 다섯 가지 기능을 해오라고 하면 대개 여덟 가지, 열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가지. 그래야만 현장에서 맞아떨어진다는 얘이야. 그건 왜냐하면 작가로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 전시할 때까지 생각이 안 났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정성이, 그것도 되나?” 하고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된다고 해야지 “선생님이 오

더 안 해서 안 돼요.” 이러면 난 불합격이지. 그제 내 신조이고 선생님도 그걸 믿으니까 안심하고 나한테 맡기지.

**문화예술** 처음에는 요구하신 만큼만 딱 만들어가서 곤란한 적도 있었겠네요.

**이정성** 아니야. 그게 하다가 길들여진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문화예술** 다섯 개를 주문하면 여덟 개를 만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이정성**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거지. 왜냐면 만드는 나도 마음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예술가는 어떨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걸 그 자리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으면 작가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러면 서로 신이 나니까 그 작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선생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와서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거 같아. ‘오더 내면 저놈은 더 해올 거다.’ 그래서 오더낼 때 대충으로만 오더내는 습관이 생기신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장 가면 내가 만들어간 기능이 논 적이 별로 없고 항상 다 써먹었다고, 그러면 난 희열을 느끼고 좋았어. 정말 기분이 좋거든. 내가 예비로 해갔는데 잘 썼다 이러면 최고지. 안 쓰면 내가 잘못 짚은 거고.

**문화예술** 백남준 선생님이 컨셉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덧붙여 아이디어를 내거나 한 일은 없었어요?

**이정성** 내 의견을 구하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특별한 경우에 “네 의견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아니면 난 얘기하면 안 돼요.

**문화예술** 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두 분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정성** 그것도 내 마음속으로 나 혼자 정했지. 작가가 나한테 컨셉을 전달할 때는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날 밤을 새며 생각한 끝에 나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걸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즉흥적으로 탄 게 더 좋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선생님이 물어보기 전에는 얘기한 적이 없어. 지금도 그게 옳았다고 봐요. 입이 간질간질하더라도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 선생님이 내 의견을 물

어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지 비판적으로는 해선 안 되지.

**문화예술** 그래도 선생님의 의견을 구한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이 선생님 아이디어도 작품 속에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정성** 당연히 그렇지. 아이디어 미팅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런 걸 구현하려고 하는데 니 의견은 어떠냐’ 하시면, 그때 서로 토론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죠. 또 미팅 자리에서는 선생님이 그걸 원하는 거니까. 아이디어 미팅할 때 참 힘들어도 좋았어요. 독일 쾰른 역에 가면 우리가 단골 미팅 장소로 많이 이용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나 자러 간다” 하시면 난 호텔 가서 잠깐 눈 붙이죠. 다음날 또 일 해야 하나까. 많이 했죠…. 그렇게 회의하고 드로잉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나한테 다 남아 있지. 구상 단계에서 끝난 것들도 많고.

**문화예술** 구상 단계에서 끝나고 작품으로 안 나온 건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였나요?

**이정성**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나랑 있을 때 막 말씀하셔도 막상 오더는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언제 실현된다고 정하는 게 아니지만 난 늘 준비하고. (웃음) 그런 메모나 드로잉이 참 많아요. 어느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냥 노트 찢은 거, 식당 냅킨에다 그리고….

**문화예술** 그런 메모만 보셔도 그때 상황들이 다 기억나시겠어요.

**이정성** 그럼 뭐. 이거 안 봐도 늘 생각하죠. 늘….  
(긴 침묵)

**문화예술** 아이디어 회의는 두 분이서만 하셨어요?

**이정성** 미국 애들도 있고 독일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나한테 말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 조수이자 친구였네요.

**이정성** 선생님이랑 내가 띠동갑이에요. 그런데도 한참 기차역 같은 데서 밤 새우고 할 땐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 다 내놓고 했죠. 작품 구상하다가 갑자기 고향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친구들 얘기 할 때도 있고…. 문득문득 한국을 제일 그리워하고, 나를 만나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죄 털어놓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이 향수에 젖어 있을 때 늘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한번은 스위스에 전시를 같이 간 일이 있는데, 둘이 취리히에서 매일 기차 타고 왕복했다고. 아침에 바젤 갔다가 끝나면 “야, 우리 가자!” 하고 취리히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서만 그랬는데…. 그런 추억이 지금…. (그는 오랫동안 말을 멈추었다.) 사람 미치죠. 그림죠.

**문화예술** 가족 같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셨을 때 상실감도 크셨을 거고요.

**이정성** 그걸 얘기하면 뭐해. 말하면 뭐해…. (긴 침묵) 미국은 장례식장에서 망자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돌아가신 얼굴 보니까 편안히 누워계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봤지. 요새도 정초면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선생님 계신 봉원사에 가서 인사 드려요. 가까운 데 계셔서 다행이지.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면서도 백 선생 계신 데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참 야박하

다 싶어서 서운할 때도 있어요. 작품을 좋아하면 한번쯤 가면 좋잖아요. 쓸쓸하죠... (침묵) 우스운 게, 돌아가신 후에야 한국의 기자들이나 다른 분야 사람들이 날 찾고 그래요. 내가 한창 보파리 싸고 다닐 때는 날 모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찾죠. 이미 내 가장 큰 부분은 사라지고 없는 건데... 그래도 그게 다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응대하고 있어요. (웃음)

**문화예술** 백 선생님이랑 일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실 땐 언제였어요?

**이정성** 난... (침묵) 백 선생님하고 일할 땐 다 행복했지.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때 황금사자상 탄 작품을 했을 때 참 너무 좋더라고. 그걸 끝내고 귀국 비행기에 타가지고 비행기에서 혼자 와인 먹을 때 제일 즐거움을 느껴거든. 그때 내가 베니스에서 한 45일을 머물면서 그걸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건 나 혼자만 알지. (웃음) 난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서 혼자 싱글싱글 잘 웃지.

**문화예술** 작품이 만족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정성** 그렇지. 게다가 최고의 성적을 냈으니까. 그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와 있는데 우리 백 선생님이 최고의 성적을 냈으니까...

**문화예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최고의 성적을 내고 내로라하는 작가들 사이에서 빛이 났는데, 정작 이 선생님을 알아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게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이정성**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시스턴트로서 건방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직분이 있는 거잖아. 선생님은 예술가니까 당연히 그분이 상을 받고

칭찬받는 거지. 나는 뒤에서 그분이 제일 좋은 위치에서 상을 받는 걸 보면 그게 최고야. 예술은 그래요.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먹을 갈아주고 페인트를 사다드렸어도, 그건 작가의 영광이야. 옆에서도 와주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걸로 만족해야지. 그걸 넘보면 나쁜 놈이지. 그러면 안 돼요.

**문화예술** 그럼 가장 속상하실 때는 언제였어요?

**이정성** 선생님하고 일하면서는 속상했을 때는 없어요.

**문화예술** 백 선생님과과의 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 자체에서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정성** 가끔 속상한 게 있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백 선생님을 혹평하는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지. ‘당신이 백남준 선생님을 얼마나 알고 그러느냐?’ 하는 질문을 꼭 해주고 싶기도 해요. 뭐, 백 선생님 생각하는 마음이 다 나 같아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까 내가 발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죠.

**문화예술** 가장 기분 좋을 때는 백남준 선생님이 칭찬받으실 때고, 가장 속상하실 때는 백남준 선생님이 안 좋은 평가 받으실 때네요.

**이정성** 뭐, 그렇지. 나한테 가장 큰 부분인 분이시라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있던 이정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시간들 있어요? 내 보물들 보여줄까?

이정성은 다섯 평도 안 되어 보이는 ‘아트마스터’ 작업실 한켠에 놓여 있던 나무상자를 열었다.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상자 속에서 온갖 메모들과 드로잉은 물론, 사용처를 짐작할 수 없는 고무공과 쇠로 만들어진 로봇이나 맥주병 같은 것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그는 작은 종이쪽지 하나, 펜으로 휘갈겨놓은 글자 한 자만 보고도 ‘이건 언제, 어디에 갔을 때, 백 선생님이 이런 얘길 하면서 쓰신 거였지’ 하며, 사진을 박아놓은 듯 오래된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추억을 떠올리다가도,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재를 새삼 상기할 때 이정성의 아득한 얼굴은 백남준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했다.

**이정성** 이게 뭐냐면 (그림이 잔뜩 그려진 커다란 종이냅킨) 아까 얘기한 레스토랑 같은 데 앉아서 그린 드로잉이지. 이게 테이블페이퍼라고요. 빠리의 몽빠르나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한테 팁을 200프랑이나 주고 자리를 잡고는 몇 시간 동안 작품 구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상당히 귀한 거지.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식당 앞에 굉장히 큰 네온사인 보드가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면서 토론을 하려고 그랬지.

**문화예술** 이건 (짙은 갈색의 맥주병) 뭐예요?

**이정성** 아, 이건 ‘남준술’이지. 라벨이 ‘백남준’이에요. 전시회 기념으로 백남준 술을 만든 거고... 여기 (그림이 그려진 종이) <고인돌> 스케치도 있는데. 광주비엔날레 때 백 선생님이 작품 구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도 그걸 안 갖고 있지. 나한테만 있지. (웃음)

**문화예술** 이 종이는 (가운데 동그란 간지가 끼워



져 있는 사각종이) 좀 특이한데요?

**이정성** 이건 레코드판 껍데기야.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현장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LP 커버를 빼서 그냥 거기에 쓰고, 그 LP는 커버 없이 집어넣었지. (웃음) 아, 이것도 (A4 파일 가득 넣어놓은 메모 조각들. 종이에 마구 휘갈겨 쓴 글씨들이 가득했다.) 작품 구상이예요. 올림픽미술관에 전시한 작품 기초 구상이지.

**문화예술** 이런 글씨를 다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이정성** 그럼요. 못하면 안 되지. 그냥 쓱 봐도 그때가 다 기억나는걸. 나한테는 다 소중한 기념품이니까 갖고 있다가 한번씩 꺼내보고 그러면 다 생각난다고.

**문화예술** 제일 아끼시는 게 어떤 거예요? 갖고 계셔서 뿌듯하신 거 있잖아요.

**이정성** 내가 제일 아끼는 거라... 이걸 빼주는 게 아닌데. 허허... 이걸 그냥 스케치가 아니라 정식 작품이에요. (상자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은색 로봇이었다. 이정성은 로봇의 네모난 몸체 위, 머리 대신 달려 있는 소켓에 전구를 끼우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 전구를 끼우면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백 선생님 사인 있죠? (웃음)

**문화예술** 이 작품은 백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이정성** 응, 그렇죠. (전구를 끼우고 콘센트를 연결하자, 로봇의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달린 전구가 오렌지색으로 반짝였다. 마치 로봇이 ‘번뜩’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듯했다.) 재미있어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정성은 계속해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문화예술** 로봇 들고 계시니까 웃음이 절로 나시나 봐요, 선생님. (웃음)

**이정성** 이만큼 좋아할 게 어디 있겠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이걸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작품을 누구한테 주겠어? 마드리드 전시할 때 이걸 갖다놨는데, 어떤 놈이 집어 갈까봐 로봇 다리에도 스틸와이어 걸고, 경비원한테 고 옆에서 눈 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니까.

**문화예술** 선생님. 여기 있는 물건들 보니까 마치 이 작은 사무실이 백 선생님 박물관 같아요.

**이정성** 사무실은 조그마한데 짐 보따리가 많아서 골치 아프지. 그래도 여기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외장하드에도 선생님 자료가 다 있어요. 만에 하나 고장날까봐 똑같은 데이터를 세 군데 저장해놨지.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서 비디오 편집도 해야 돼요. 내가 백 선생님 작품 보존을 똑바로 하려면 보수도 해야 하지만 자료 관리도 하고 비디오 편집까지 알아야 돼요.

**문화예술** 선생님이 어느새 예술가가 되셨네요.

**이정성** 난 옆에서 보조나 해줬는데 뭐. 이제 선생님 가셨으니까 그거 보존 잘 되게 해야지.

**문화예술** 이 선생님 만나러 올 때 마음가짐이, 사실 백남준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이정성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을수록 백남준 선생님 얘기 없이는 이정성 선생님을 설명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성** 난 모든 것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괜히 온 거야, 기자 양반들. 나한테 들을 것도 없는데. (웃음)

**문화예술** 이젠 이정성 없는 백남준도 상상도 안 가는데요.

**이정성** 어허, 내가 없으면 또 누군가가 하겠지. (웃음)

2008년 8월 12일 이정성 작업실 '아트마스터'에서,  
9월 4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나다  
정리 홍상희 편집부 | 사진 박정훈, 박정희

